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Policy Effects to Boost Basic Industries on Local Employment

오 세 운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주저자)

홍 준 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Se-Un Oh / Jun-Hyun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s of policy effects to boost basic industries on local employment. According to economic base theory, the policy of boosting basic industries affects basic employment portions in the region. In turn it affects ultimately regional economic growth. Therefore, based on economic base theor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basic employment portion on local employment through empirical statistical model targeted on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However regional economic growth is not solely determined by basic employment portion. Thus, other determinants which are not supported by economic base theory, such as general supply and demand factors affecting non-basic industries, were controlled in the model. To measure basic employment portion, location quotient analysis was employed in this study, and OLS regression model is utilized as a statistical tool.

주제어: 기반산업육성정책, 지역경제, 경제기반이론, 입지상 분석, 기반고용

Key Words: Policy Of Boosting Basic Industries, Regional Economy, Economic Base Theory, Location Quotient Analysis, Basic Employment

* 본 연구는 교신저자의 심층 지도하에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공동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여 주저자의 학위논문으로 작성된 것을 바탕으로 다시 교신저자의 수정보완을 통해 학술논문으로 제작성된 것입니다.

I. 서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은 지역이 자체 내에서 필요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소수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 및 집적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전북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와 같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로 소수의 전략산업에 지역 내 한정된 자원을 집중 배분하여 주도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이를 지원하여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류수열·윤성민, 2007: 103).

그러나 이러한 기반산업육성을 통한 지역특화 전략이 실제 지역경제 전체를 활성화로 이어진 곳도 있는 반면, 오히려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 곳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제기반이론에 따르면 지역 간 상이한 기반산업육성정책은 지역 내 기반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기반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고용비율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OLS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기반고용자수를 조사하기 위해 경제기반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의 기반고용자수를 분석하고, 기반고용자수의 증대와 지역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지역 외로 재화와 용역을 수출하여 지역소득을 창출한다는 경제기반이론의 기본 가정이 지역특화산업육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성장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경제기반모형이 지역경제성장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기반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른 요인에 의해 그 효과가 억제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수의 증감률을 살펴보았을 때, 광역시와 제주권을 제외한 156개 시·군 중 90여개의 지역에서 고용증감률이 음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중 34개 시·군은 기반고용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상관관계의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내 기반고용증가와 지역경제성장이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군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군을 구분하고, 두 유형의 지역에 대해 기반고용증가 외에 지역의 비기반활동에 미치는 요인, 경제기반이론이 가지는 한계요인 중 수요측면 요인과 생산측면 요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제기반이론과 지역경제의 성장

경제기반이론은 도시 및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경제기반이론은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은 생산물은 다른 지역에 수출함으로써 그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소득의 일부는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가 유발되어 지역의 고용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증대된 지역소득은 지역 내의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켜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소득의 증가는 지역 외 시장에 재화와 용역을 수출한 양이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존한다(전도일, 2000).

경제기반모형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한 지역의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비교우위성을 갖는다면 외부수요가 많아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수출이 증가하고 새로운 생산요소의 지역유입이 증대되며, 유입된 생산요소는 지역수출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전문 서비스 보조 산업이 창출되고 지역 내적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 지역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지역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소득이 증대되어 선순환적인 지역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홍기용, 1994: 92).

경제기반이론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반활동의 측면이다. 지역경제성장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이다. 지역차원에서 복지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의 직접투자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정부투자는 지역소득이 증가하여 세수가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개인투자는 개인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성장의 하위 목표로서 지방정부는 기반산업 유치 및 육성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기반산업은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2000~2005).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을 통해 지역외부로부터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반활동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둘째, 비기반활동의 측면이다. 지역경제성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경제활동은 생산과 소비활동이 분리되어 발생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살면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는 성장한다. 비기반활동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주기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활동이 촉진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내부적으로 순환되고 더 많은 고용기회와 소득창출이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지역경제성장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정주기반을 확보하고 비기반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성장은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도시 내 기반활동이 증대되어 재화와 용역을 외부로 많이 수출할수록 지역의 소득은 증가한다. 그로 인해 부차적으로 비기반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전체로 기반활동의 영향이 과급된다(Klosterman, 1990).

하지만 이런 관계가 지역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기반활동의 구성이 높아도 그 승수효과가 미약하면 비기반활동의 구성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지역 내 기반활동의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비기반활동은 증대된다. 지역마다 비슷한 기반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승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기반활동이 비기반활동에 미치는 과급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소득을 창출하는 기반활동이라도 비기반활동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기반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고용의 기회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은 지역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비기반활동의 증대는 기반활동 지원을 강화하므로 지역 내 정주기반을 확보되고 주민들이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성장은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적절한 상호의존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의 비기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의 산업구조는 경제기반승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비기반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기반산업은 지역별로 종류가 다르며 산업의 다양성 또한 다르다. 지역의 산업입지에 따라 특화된 산업이 다르고 산업별 비기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지역 내 제조업 같은 경우 다른 산업들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기반산업이 비기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들 보다 고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창출되는 직업이 많다. 고용기회의 증가는 외부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들이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성향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기반승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Alexander(1951, 1953)는 산업구조를 서비스, 정부, 제조업, 통상, 그 외로 나누어 Oshkosh와 Madison의 지역산업구조를 비교 연구하여 지역 산업구조에 따라 기반승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Oshkosh 지역은 제조업이 기반고용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며 2차 산업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녔다. 반면에 Madison 지역은 정부활동이 크고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Oshkosh 지역보다는 더 다양한 산업구조를 특성을 지녔다. 비교 결과 제조업위주의 Oshkosh 지역보다 기반산업이 다양한 Madison 지역이 비기반산업에 대하여 더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 산업구조는 산업연계로 인한 효과로 인해 비기반산업의 확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구성원들의 소비활동 성향은 비기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지역 내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경우와 지역외부에 의존하여 소비를 할 경우 비기반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의 50%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그 나머지를 지역외부에서 소비할 경우 그 승수효과는 반감된다. 또한, 지역외부로 유출되는 소득 중 중앙정부에 의해 거둬지는 세금, 공공지출요금도 지역소득에 영향을 준다(Hildebrand & Mace, 1950).

3. 경제기반이론에 기초한 지역경제성장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경제기반모델은 주로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김병현(1991)은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징과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연구논문에서 경제기반이론에 근거하여 입지상분석과 변화-할당분석으로 지역산업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임범중·한상민·윤병국(2004)은 경제기반모형을 적용하여 관광산업이 시·군 단위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입지상 분석을 통해 충북지역의 시·군별 산업의 상대적인 전문화 또는 특화도를 조사하여, 이를 통해 충북지역의 관광산업의 낙후정도를 보여주었다. 김학훈(2003)은 농촌중심지의 경제기반을 조사한 연구에서 청원군을 사례로 경제기반분석을 적용하여 직접면담조사를 통해 농촌중심지의 경제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최낙필(2003)의 연구에서도 지방분권화시대의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입지상 분석과 변화할당분석을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유형을 분류하였다.

한편 경제기반모델은 기반고용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박지형·홍준현(2007)은 시·군 통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기반분석모델을 이용해서 기반고용 비율을 산출하고, 변화할당 분석을 통해 고용성장률 예측치를 산출한 다음, 지역의 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홍준현·박지형·임민혁(2010)은 원전 입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기반부문 고용 비율의 변화를 통해 원전산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기반모델은 지역경제성장의 요인을 설명하면서 기반고용의 증대가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경제기반이론은 지역 밖으로의 수출을 중요시 여기면서 산업의 특화를 통해 수출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국제무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의 범위를 달리 할 뿐 동일한 근거에 기초하여 수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4. 경제기반이론의 한계

경제기반이론은 전통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 및 후퇴에 관하여 가장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왔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수요측면에서의 한계이며 둘째는 생산측면에서의 한계이다.

1) 수요측면에서의 한계

경제기반이론은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복잡한 도시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지역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기반산업을 통한 수출을 제외하고도 지역소비, 지역투자, 정부재정지출 등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기반이론의 수요측면에서의 한계이다. 재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노근호(1994)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 지출 간의 쌍방향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지역경제성장이 지방의 재정수입의 확대를 초래하고 역으로 재정수입의 확대는 투자지출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동진·홍준현(2008)은 지방재정역량의 격차와 지역격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변수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접근성, 생활편의성, 경제적 발전성, 환경 쾌적성, 재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세외수입규모와 지방세징수율 변수가 지역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역경제성장이 경제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대한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경제기반이론의 수요측면에서의 한계점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범위한 직주분리에 의한 지역 간 자원최적배분 왜곡 현상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직주분리는 도시 내 산업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과 같은 정주여건이 취약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계소비는 주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주가 분리되어 비중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은 생산과 소비도 불일치할 수 있다. 김정완(2003)은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생산 지표인 지역 내 총생산과 지역귀착 지표인 예금액, 가계소비액, 지방세수 등의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입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은 경제기반이론에서 수출기반활동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승수효과가 비기반활동으로 파급되는데 제한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권창기·정현욱(2005)은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 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특히 직주분리현상을 분석하여 정주지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근무지와 거주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생산측면에서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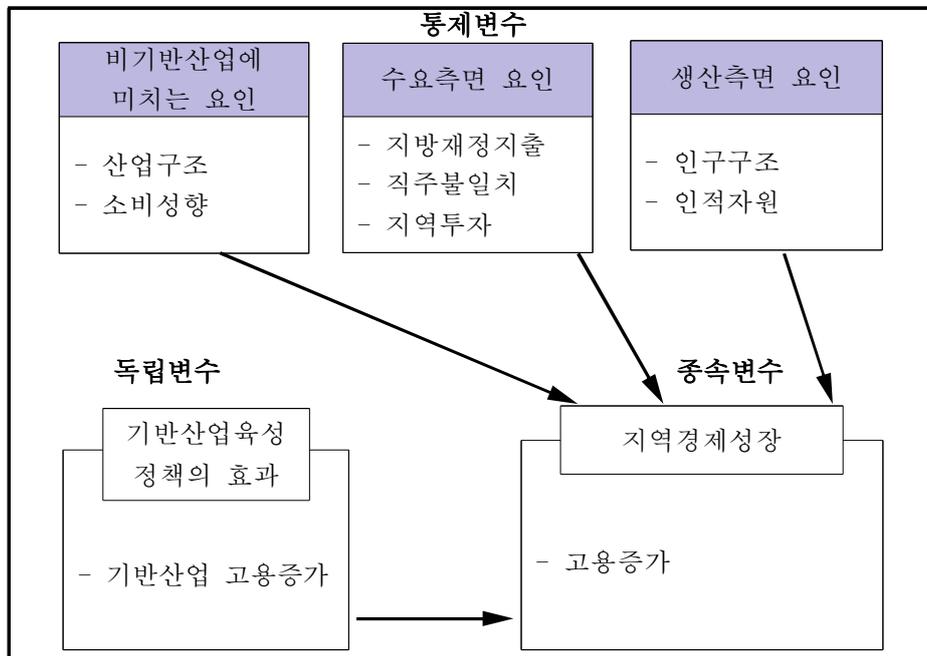
생산측면에서의 한계점 역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신고전모형은 생산성 증대를 성장의 기초로 보고 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본, 노동, 기술이 그 생산요소이다. Beeson(1987)의 연구에서는 집적변수가 직접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하였는데, 특히 도시규모를 나타내는 도심인구, 도심거주 인구비중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노동집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영성(2008)의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변수로 총인구 산업구성을 반영한 금융·서비스산업 종사자수 등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안동환·권오상·이성우(2003)의 연구에서는 자본과 노동을 대변하는 변수로 산업의 고용규모와 인구규모 등을 사용하여 제조업의 지역생산성을 분석하였다. 김현민(2002)의 연구에서도 자본과 노동의 생산요소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1인당 평균임금과 1인당 고정자산유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반면에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지역의 생산성증대가 지역경제성장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신고전학파이론과 동일하지만 생산성의 증대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술진보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기술진보는 노동, 자본, 연구투자와 같은 요소투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되면 지역의 경제성장도 이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

다. 특히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은 지식으로부터 교육 등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인적자본도 실물자본처럼 투자를 통해 미래 수익을 얻는다. 즉, 현재의 교육투자가 노동의 질을 변화시키고 노동의 질이 향상되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조달호, 2002).

Ⅲ. 분석틀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은 경제기반이론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경제기반이론은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은 생산물은 다른 지역에 수출함으로써 그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지역의 성장은 지역 내 기반산업 뿐만 아니라 비기반경제활동, 지역 내 수요활동 및 생산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경제기반이론을 근거로 하되, 비기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요측면 요인 및 생산측면 요인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중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은 연구의 주제가 되는 가설로서 전통적인 경제기반이론이 설명하는 기반고용증가율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성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기반고용증가율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기반산업에 미치는 요인, 수요측면 요인 및 생산측면 요인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는 성장할 수도 있고 기반고용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반산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경제성장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2), 가설3) 및 가설4)를 설정하였다.

가설1) 기반고용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은 높을 것이다.

가설2) 비기반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은 높을 것이다.

2-1) 2차 산업비중의 증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은 높을 것이다.

2-2) 소비성향이 크게 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은 높을 것이다.

가설3) 수요측면요인이 큰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3-1) 지방재정지출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은 높을 것이다.

3-2) 지역건설투자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은 높을 것이다.

3-3) 직주불일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은 높을 것이다.

가설4) 생산측면요인이 큰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4-1) 노년층 인구비중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은 작을 것이다.

4-2) 대졸자 비중 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은 높을 것이다.

IV. 연구 설계

1. 분석 단위 및 범위

본 연구는 시·군지역의 기반활동을 분석하고 기반활동의 승수효과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과 2005년의 전국사업체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종사자수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지역의 기반고용인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단위는 7개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시·군을 제외하고²⁾ 도 산하의 156개 시·군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단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사례들이 광역권을 대상으로 분석단위를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포괄적이라는 점을 보완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시·군지역의 기반활동을 분석해야 하므로 어떤 산업을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조사 혹은 직접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기반산업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겠지만, 연구조사의 비용, 시간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2차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기반분석방법으로 기반활동을 분류하였다. 입지상 분석방법의 경우 산업별 지역특화가 이루어진 것을 기반산업으로 간주하여 간접적으로 각 지역별 기반고용자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지역 내 기반고용자수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고, 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후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요인들로 한정하였다.

2. 종속변수

외국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대응변수로 총소득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윤지웅 외, 2009).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군별 총소득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윤지웅·김태영·김주경(2009)은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종속변수로서 시별 총소득을 우회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시별 부가가치 총액을 대응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의 척도로 사업체 종사자수를 도시별 인원수로 나누어 정규화 시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대응변수는 전국의 부가가치총액을 각 지역의 인구비중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지역소득이 인구에 비례한 값으로 계산된다. 이 대응변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성장 정도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득과 생산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자료를 종속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연도별,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의 종사자수 증감률로 지역경제성장 정도를 측정하였다.

3. 독립변수

1) 기반고용자수

지역의 기반고용자수는 지역별·산업별 고용자수 중에서 지역 외로 수출을 하여 수입

을 창출하는 사업체를 기반활동으로 간주한다. 기반고용자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라 조사된 전국 사업체 조사 종사자수³⁾를 자료로 하여 경제기반분석 중 입지상 분석⁴⁾(Location Quoti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기반고용의 증감율을 나타내기 위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기반고용의 증감수를 초기 기반고용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경제기반이론에서 기반활동은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그 승수효과로 인해서 지역 내 전체 고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고용자수가 증가할수록 지역 전체의 고용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구조(2차 산업의 비율)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산업구조를 보면, 지역 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의 변천이 두드러진다. 1960년대에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경공업이 중심이 되어 경제가 성장하였고, 1970년대에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진흥정책과 대도시억제정책으로 인하여 대도시가 쇠퇴하고 구미, 울산, 포항, 창원 등이 성장의 거점도시로 기능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강화로 충북과 충남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경기와 충남 등이 경제성장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은 상이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성익·유병철, 2007: 118).

지역의 산업구조는 해당지역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을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lexander(1951)는 Oshkosh와 Madison 지역을 분석하면서 2차 산업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지역보다 각 산업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산업연계를 통해서 비기반산업의 확장에 영향을 미쳐 보다 높은 고용성장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강운호(2008)는 지역경제성장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산업구조가(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가 변화함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2차 산업은 부가가치의 창출력이 커서 지역총생산과 인과관계가 크게 나타나기

3) 본 연구에서 쓰인 자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에 따라 조사된 종사자수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 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과 2005년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이 이루어진 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산업분류 중 산업중분류를 이용하여 총 61개 산업분류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별 고용에 있어 대분류보다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지역별 산업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중분류에 대한 자세한 분류표는 <http://kostat.go.kr/kssc> 참조).

4) 입지상 분석에 의한 기반고용자수는 Klosterman(1990)을 참고하여 도출되었다. 입지상 분석에서 기반고용을 구하는 식은 생산비율과 소비비율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지역별 소비성향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인구비율로 보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홍준현외(2010) 참조.

때문에 2차 산업의 비율(광·공업 종사자수/전산업 종사자수)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징을 2차 산업의 비율로 나타내되 시·군지역의 단위로 구할 수 있는 지표로서 2000년, 2005년 광공업 종사자수를 이용하였다.

3) 지역소비성향(소매 및 서비스업 매출액)

지역 내에서 소득증수효과는 수입과 지출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한다. 즉 지역 내 소비지출은 다른 경제활동인구의 수입이 되고 수입은 곧 지출을 위한 소득이 되어 증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지역 내에서 소득증수효과가 크게 발생하려면 우선 가게에서 소비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를 지역 내 소비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소비성향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소매업 및 서비스업 매출액은 2000년,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4) 지방재정지출

현행 지방재정의 세출예산분류기준에 따르면 재정의 세출기능은 5개 대기능인 ‘장’과 16개 중기능인 ‘관’으로 구분되며, 그 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개발비의 세부항목은 크게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나눈다. 경제개발비의 세부항목은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이다. 이영성(2009)은 시·군·구의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지역 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유발하는 소비와 투자 같은 최종수요는 지역경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합한 변수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총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5) 지역건설투자비(건축허가면적)

지역 건설은 지역 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건설 수요를 통하여 산업 활동을 영위한다. 반대로 지역건설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건축물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중간 자재와 인력 등을 수요하여 지역내부의 생산·고용을 유발하고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건설 활동에 대한 주요 지표로는 건축허가면적, 주택공급량, 건설부문 총수주액 등이 쓰이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건

설부문에 대한 투자가 관련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김혜천, 1994). 모성은(1999)은 지역경제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지역SOC성장모형의 변수로 건축허가면적을 사용하여 지역성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판명하였다. 즉, 건축허가면적이 클수록 지역경제성장도 개선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군별 건축허가 면적자료는 2000년, 2005년 한국 도시통계/건축허가실태 자료를 이용하였다.

6) 인구구조(노년층 비율)

출산율이 저하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인구구조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도시에서는 여전히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력노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경제 행위가 연령대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청소년은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요하고, 성년은 노동 공급 및 저축을 담당하고, 노년은 의료보험과 연금소득을 필요로 하는 등 연령대별로 소득과 소비 행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구조에 따라 각 연령의 상이한 경제행위로 인해 경제적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김기호, 2005). 본 연구에서도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고령화를 변수로 이용하며 노년층 비율은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지역별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획득하여 노년층 비율의 증가율을 구하였다.

7) 인적자원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인적자원은 기술진보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전학과모형에서 생산성 증대는 곧 지역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케인즈학과 모형에서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급측면을 중요시한다. 공급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며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 양측에 영향을 미친다. 기반활동의 경우 지역 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면 생산성이 높아져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가능성을 높여지고 지역소득은 증가한다. 비기반활동의 경우 인적자원이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인적자원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 Becker(2002)는 현대 경제성장에 있어 인적자본은 중요하며,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자본도 중요하지만 기계나 장비를 다룰 줄 알고 공장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교육 시키는데 더욱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인적자원을 나타내는 자료로 인구총조사에서 지역별 교육

정도를 조사한 자료인 대학 이상 졸업자수를 증가율로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8) 직주불일치

지역민들의 주거입지 선택결정은 주거는 직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근린환경, 범죄율, 교육, 문화, 편의시설, 의료등과 같은 해당 주거입지 지역의 공공서비스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은 주거이동이 가구특성을 중요시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최준호·이환범·송건섭, 2003). 즉 주거지와 직장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 분리될 수 있다. 특히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해 공간적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주거환경적 요소는 더욱 중요하게 변하였다(김재익·전명진, 1996).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직주분리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역 내 기반활동의 승수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조작화

구분	세부지표	산출식	방향
종속 변수	고용지표	종사자수 5년간 변화율(해당지역의 2005년 종사자수-해당지역의 2000년 종사자수)/해당지역의 2000년 종사자수	
독립 변수	기반고용	지역별 기반고용자수 5년간 변화율, 2000-2005년	+
	산업구조	2차 산업 종사자 비율(2차 산업 종사자수/전 산업 종사자수) 5년간 변화율, 2000-2005년	+
	지역소비성향	(소매업 매출액+서비스업 매출액) 5년간 변화율, 2000-2005년	+
	지방재정지출	지방재정지출(경제개발비+사회개발비) 5년간 변화율, 2000-2005년	+
	지역건설투자	건축허가면적 5년간 변화율, 2000-2005	+
	인구구조	노년층비율(65세 이상/전체인구) 5년간 변화율, 2000-2005년	-
	인적자원	대학교 졸업이상 자 비율 5년간 변화율, 2000-2005년	+
	직주불일치	(근무지/현거주지) 5년간 변화율, 2000-2005년	+

직주불일치, 혹은 직주균형은 한 지역의 자족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수를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노동자수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다(박수진·김인, 2006). 시·군지역의 직주불일치에 대한 정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현거주지와 근무지 자료를 이용한다. 지역별 직주불일치에 대한 정보는

(근무지/현거주지)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산출식의 의미는 어느 한 도시를 현거주지로 볼 때 그 도시의 근무지 숫자를 말한다. 도시 내 근무지의 숫자가 많을수록 직주가 일치되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지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순환하게 된다. 현거주지보다 근무지가 적을 경우 직주불일치는 증가하게 되고 고용기회가 적기 때문에 거주노동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통근패턴이 나타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지역의 경제기반활동이 지역 내 승수효과를 발생시켜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OLS)의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OLS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a + \text{기반}\beta_1 + \text{비기반}\beta_2 + \text{수요}\beta_3 + \text{생산}\beta_4 + \epsilon \quad (1)$$

(1)에서 y 는 지역의 고용의 증가율, ‘기반’은 지역별 기반고용자수 5년 대비 변화율(2000년-2005년), ‘비기반’은 비기반산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벡터, ‘수요’는 수요측면 요인의 벡터, ‘생산’은 생산측면 요인의 벡터이다.

V. 분석 결과

1. 기반산업 고용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기술통계

<표 2>는 전 지역의 기술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종속변수인 고용의 변화율은 최대 0.797이고 최소 -0.492를 나타내고 있다. 전 지역의 평균값은 0.061이고 표준편차는 0.165정도이다. 독립변수 중 기반고용 변화율은 최대 3.275이며 최소 -0.753으로 평균 약 24% 증가하였다. 2차 산업 비율의 변화율은 5년 대비 최고 4.6배 증가하였고 최솟값은 -0.92로 평균 0.085 변화하였다. 소비매출의 변화율은 최고 3.098이고 최소 -0.153이며 평균값은 0.691이다. 직주불일치 변화율은 평균 0.023이고, 세출 증가율은 0.707이며 최고 3.368배 증가하였다. 건축허가면적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최대 19.876이고 최소 -0.863을 나타내고 평균 0.707이다. 인당 65세 이상 증가율의 경우 평균값은 0.304이고 최댓값은 0.996이고

최솟값은 -0.314이다. 대졸자비율 증가율도 평균값은 0.506이고 최댓값은 10.889이고 최솟값은 -0.654이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통계량은 모두 변화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지역별 2000년 대비 2005년 사이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변수들의 평균값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은 대부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전 시·군지역의 기술통계량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고용 증가율	156	.061	.165	-.492	.797
기반고용 증가율	156	.239	.510	-.753	3.275
2차 산업 고용비율 증가율	156	.085	.575	-.920	4.601
소비매출 증가율	156	.691	.402	-.153	3.098
직주불일치 증가율	156	.023	.087	-.200	.414
세출 증가율	154	.707	.476	-.863	2.368
건축허가면적 증가율	156	.976	2.287	-.840	19.876
노년층비중 증가율	156	.304	.118	-.314	.996
대졸자비중 증가율	156	.506	.969	-.654	10.889

이를 다시 기반부문고용의 변화율과 총고용의 변화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표 4>와 같다.

먼저 양의 상관관계 지역을 보면, 156개 시·군 중 75개 시·군은 지역내 기반고용의 변화율과 총고용의 변화율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7개 시·군은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역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총고용증가율은 양의 상관관계 지역이 0.02포인트 더 컸고, 기반고용의 변화율도 양의 관계지역이 0.075포인트 더 크게 변화하였다. 2차 산업 고용비율은 0.059포인트 더 크게 증가하였고, 소비매출의 경우에도 0.025포인트 더 컸으며, 대졸자 비율도 양의 상관관계 지역이 0.054포인트 더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직주불일치, 지방재정지출, 건축허가면적, 노년층비중은 양의 상관관계 지역이 평균적으로 전 지역 평균보다 작게 증가하였다.

<표 3> 양(+의 상관관계 지역의 기술통계량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고용 증가율	102	.087	.185	-.492	.797
기반고용 증가율	102	.313	.589	-.753	3.275
2차 산업 고용비율 증가율	102	.144	.672	-.920	4.601
소비매출 증가율	102	.716	.455	-.153	3.098
직주불일치 증가율	102	.022	.090	-.189	.385
세출 증가율	102	.701	.498	-.863	2.368
건축허가면적 증가율	102	.912	1.848	-.751	12.475
노년층비중 증가율	102	.292	.136	-.314	.996
대졸자비중 증가율	102	.559	1.184	-.654	10.889

한편 음의 상관관계 지역은 총 54개 시·군으로, 이 중 37개 시·군은 기반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고용은 감소한 지역이고, 17개 시·군은 기반고용이 감소하였지만 총 고용이 증가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들은 경제기반이론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곳으로서 기반부문의 고용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지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의 상관관계 지역은 양의 상관관계 지역과 비교했을 때, 총고용, 기반고용, 2차 산업 고용비율, 소비매출액, 대졸자 비중의 증가율에서 평균값이 더 작게 나타났고, 직주불일치, 지방재정지출, 건축허가면적, 노년층비중의 증가율에서 평균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 음(-)의 상관관계 지역의 기술통계량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고용 증가율	54	.011	.103	-.143	.379
기반고용 증가율	54	.098	.259	-.456	.765
2차 산업 고용비율 증가율	54	-.027	.292	-.715	.905
소비매출 증가율	54	.644	.275	.053	1.377
직주불일치 증가율	54	.026	.083	-.200	.414
세출 증가율	54	.720	.436	-.366	1.834
건축허가면적 증가율	54	1.097	2.962	-.840	19.876
노년층비중 증가율	54	.327	.087	.144	.464
대졸자비중 증가율	54	.405	.237	-.483	1.673

2) 회귀모형의 추정결과

<표 5>는 156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OLS 회귀모형과 기반고용증가율과 총고용증가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시·군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시·군을 구분하여 분석한 OLS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⁵⁾

<표 5> 전체 시·군 지역대상 OLS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전체 (n=156)			양의 관계 지역 (n=102)			음의 관계 지역 (n=54)		
	b	Beta	t	b	Beta	t	b	Beta	t
기반고용 증가율	.111	.350	5.566***	.146	.473	5.517***	-.028	-.072	-.595
2차 산업 고용비율 증가율	-.010	-.035	-.421	-.009	-.064	-.589	.013	.037	.348
소비매출 증가율	.145	.357	4.828***	.099	.253	2.597**	.204	.545	4.481***
직주불일치 증가율	-.019	-.010	-.163	-.009	-.023	-.293	-.125	-.101	-.993
세출 증가율	.045	.133	2.061**	.032	.091	1.117	.056	.239	2.282**
건축허가면적 증가율	-.002	-.023	-.369	-.003	-.097	-1.170	.003	.084	.817
노년층비율 증가율	-.226	-.165	-2.235**	-.209	-.210	-2.144**	-.337	-.220	-2.162**
대출자비율 증가율	.033	.197	2.315**	.032	.262	2.365**	-.041	-.096	-.949
F	16.727***			11.745***			8.504***		
R ²	.480			.508			.602		
Adj. R ²	.451			.465			.531		
VIF	1.053~2.018			1.156~2.275			1.148~1.670		
Durbin-Watson	1.980			1.942			1.627		

* p<0.1, ** p<0.05, *** p<0.01

추정결과, 전 시·군 지역에서 고용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비매출증가율과 기반고용증가율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매출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기반고

5)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해본 결과 VIF 값이 세 유형의 추정식에서 모두 3이하로 낮게 나와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오차항간의 자기 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치를 검증한 결과도 모두 1.5~2.5 사이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이 증가할수록 총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노년층비율이 증가하면 오히려 총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자비율과 세출이 증가할수록 총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산업고용비율의 증가와 직주불일치비율의 증가, 건축허가면적의 증가는 총고용의 증가에 95% 신뢰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내 기반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해주는 것이다. 지역 내 기반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해당지역 내 혹은 역외로 판매를 한다. 이 때 역외로 수출하여 얻은 수입은 지역내로 유입되고 지역소득을 신장시키게 된다. 지역소득이 많아질수록 고용은 활발히 일어나고 더불어 지역내 소비도 촉진된다. 지역소득이 증가하면 지방정부 세입이 늘어나고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증대시키게 되어 지역내 복지사업을 위한 투자나 도사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세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반고용의 증가, 소비매출액의 증가, 세출의 증가는 지역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대졸자비율이 클수록 교육투자액이 많고 기술습득이나 전문지식이 축적이 높아 인적자원에 의한 지역내부의 혁신과 개발잠재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김정민, 2001). 반면 노년층 인구비율의 증가는 노동공급, 저축, 경제성장, 재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하능식·임성일, 2007).

하지만 기반고용증가율과 총고용증가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기반고용증가 총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기반고용증가가 총고용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졸자비율의 증가와 소비매출의 증가가 총고용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의 정도는 기반고용비율증가에 비해 약했다. 그러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소비매출증가가 총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세출증가가 총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양 지역 모두 노년층비율의 증가는 총고용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반고용증가율과 총고용증가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시·군의 경우에 기반고용증가가 총고용증가에 월등히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세출증가가 총고용의 증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소비매출증가가 총고용에 미친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도 떨어지는 것은 지역경제에서 지방재정지출이 비기반산업을 촉진시키는데 쓰이기보다는 기반산업을 육성하는데 보다 많이 투자되어 기반산업의 고용증가가 총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반면, 기반산업이 비기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줄어들게 되어 비기반산업의 고용이 더 적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 소비활동의 증가로 이어지는 정

도가 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의 상관관계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지역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기반산업이 육성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기반고용증가율과 총고용증가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시·군의 경우 소비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총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반고용증가가 총고용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내 산업구조가 기반산업보다는 비기반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생산활동보다는 소비성향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⁶⁾ 또한, 세출증가가 총고용의 증가를 설명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내 고용의 증가 생산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기인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세출예산에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목적이 지역내 기반을 확충하여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이나 복지를 늘리는데 있으므로 기반산업의 성장이 미약한 곳에서는 오히려 지방재정에 의존한 고용증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시지역과 군지역간 차이 분석

1) 양의 상관관계 지역 대상 시·군간 회귀분석 결과 비교

<표 6>은 기반고용의 변화율과 총고용의 변화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을 다시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누어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⁷⁾

6) 기반고용 변화율과 총고용변화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시·군의 5년간 기반고용증가율은 31.3%인 반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시·군은 9.8%에 그쳤고, 기반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산업의 고용증가율도 양의 상관관계 지역은 5년간 14.4%이었던 반면, 음의 상관관계 지역은 오히려 2.7% 감소하였다.

7)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해본 결과 VIF 값이 두 유형의 추정식에서 모두 3이하로 낮게 나와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오차항간의 자기 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치를 검증한 결과도 모두 1.5~2.5 사이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양의 상관관계 지역 중 시지역 대상 OLS 회귀분석 결과와 군지역 대상 OLS 회귀분석 결과의 비교

독립변수	시 지역 (n=51)			군 지역 (n=51)		
	b	Beta	t	b	Beta	t
기반고용 증가율	.098	.328	2.386**	.171	.579	6.039***
2차 산업 고용비율 증가율	.037	.134	.889	-.008	-.033	-.371
소비매출 증가율	.106	.291	1.848*	.092	.172	1.701*
직주불일치 증가율	-.006	-.003	-.020	.068	.038	.381
세출 증가율	.082	.174	1.219	.002	.006	.070
건축허가면적 증가율	.000	.002	.013	.025	.171	1.817*
노년층비율 증가율	-.209	-.104	-.599	-.447	-.338	-3.028***
대졸자비율 증가율†				.233	.277	2.811***
F	4.161***			12.765***		
R ²	.404			.709		
Adj. R ²	.307			.653		
VIF	1.269~2.189			1.143~1.794		
Durbin-Watson	1.722			2.079		

* p<0.1, ** p<0.05, *** p<0.01

†시 지역 모델의 경우, 2차 산업 고용비율 증가율과 대졸자비율 증가율 간에 아주 높은 상관관계(pearson r=.953)가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고, 여타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에 대졸자비율 증가율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 중 시지역과 군지역 모두에서 역시 기반고용 증가율이 총고용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지역에서는 노년층비율 증가율과 대졸자비율 증가율이 여전히 총고용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시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매출증가율은 시와 군지역 모두에서 90% 신뢰수준에서 총고용증가율에 순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지역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도 생산과 소비가 왕성히 일어나서 경제가 순환을 하며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군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인적자원 관련 변수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지역은 시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어 인적자원 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음의 상관관계 지역 대상 시·군간 회귀분석 결과 비교

<표 7>은 기반고용의 변화율과 총고용의 변화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을 다시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누어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⁸⁾

<표 7> 음의 관계 지역 중 시·군간 비교

독립변수	시 지역 (n=24)			군 지역 (n=30)		
	b	Beta	t	b	Beta	t
기반고용증가율	.011	.023	.156	.027	.145	.776
2차산업고용비율증가율	.174	.422	1.628	.021	.169	1.007
소비매출증가율	.369	.945	3.316***	-.018	-.082	-.458
직주불일치증가율	.199	.202	1.004	-.241	-.276	-1.577
세출증가율	.126	.493	3.719***	.001	.014	.067
건축허가면적증가율	-.028	-.465	-2.196**	.002	.213	1.114
노년층비율증가율	-.062	-.027	-.219	-.448	-.753	-3.304***
대출자비율증가율	-.135	-.236	-1.255	-.050	-.336	-1.674
F	6.947***			2.730**		
R ²	.787			.510		
Adj. R ²	.674			.323		
VIF	1.086~5.736			1.212~2.227		
Durbin-Watson	1.838			1.170		

* p<0.1, ** p<0.05, *** p<0.01

음의 상관관계 지역은 기본적으로 기반고용증가율이 고용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시와 군지역 모두에서 역시 기반고용증가율은 총고용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음의 상관관계 지역에서는 시와 군 모두 기반산업육성을 통한 총고용성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와 군지역간에 분명한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시지역에서는 소비매출 증가율이 총고용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출증가도 총고용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반해 노년층비율의 변화율은 총고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군 지역에서는 소비매출 증가율과 세출증가율은 총고용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노년층비율의 증가가 총고용의 감소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시지역의 경우 군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재정규모가 더 크고 지방정부를 통한 투자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소비매출액의 변화와 세출

8)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해본 결과 VIF 값이 두 유형의 추정식에서 거의 모두 3이하로 낮게 나왔으나, 2차 산업 고용비율 증가율과 소비매출 증가율은 VIF 값이 각각 4.750과 5.736이 나와서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두 변수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573으로 그리 높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오차항간의 자기 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치를 검증한 결과도 모두 1.5~2.0 사이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증가가 총고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군 지역의 경우에는 노년층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지역내 생산이 감소하여 총고용의 변화에도 부(-)의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인 기반고용증가율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와 군이 분석의 단위로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었으며 2000-2005년 사이의 기반고용증가율은 입지상 분석을 통하여 계산되었다. 또한 통계적 모형으로서 OLS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 기반고용의 증가율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기반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반산업이 성장하고 그 여파로 비기반산업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산업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기반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지식과 기술이 우선이다. 21세기로 접어들어 정보화, 세계화, 지식화로 인해 수요자 욕구의 수준은 더욱 향상되었고 기업들 간의 경쟁은 더욱 강화되었다. 전문지식과 기술로 무장된 인력이 없다면 혁신을 이룰 수 없고 지역성장에 있어서도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결합한 기반산업 육성전략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정하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략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정보통신·생명산업을,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의료 산업을, 충남·충북은 바이오산업을, 전북·전남은 대체에너지 산업을, 경북·경남은 생물한방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산업은 무엇보다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없다면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무색하게 된다.

둘째,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에 경쟁체제가 형성되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줌으로써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전략을 선택하고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되었

다.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가 전개되고 나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른 지방세수의 증대를 야기됨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와 효율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충북개발연구원, 1995). 지방재정지출 중 사회개발비는 교육이나 문화, 체육을 진흥하거나 도시환경의 개선, 보건관리, 공원 및 녹지 관리 그리고 사회복지 등을 위해 쓰인다. 도시의 질적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재 측면에서 기반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의 질적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도시의 질이 좋아짐에 따라 도시의 매력도 상승하기 때문에 지역 내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인구가 유입되고 소비지출이 많아짐에 따라 도시경제는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시의 동태적인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증진과 지역소득의 성장이다.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이 이루어지면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한다. 경제적 여건을 위해 선호하는 직장을 찾아 도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인구성장부문에서 동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재정지출 중 경제개발비는 농림수산업·광공업·전력 및 교통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어 산업지원적인 경비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투자적인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의 성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오병기, 2006). 지역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경제개발비 지출을 통해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듯이 양(+)의 관계지역에서는 세출증가율이 지역 고용의 변화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음(-)의 관계지역에서는 세출증가율이 지역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영향력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분석에 있어서 지방재정지출을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를 합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느 세출부문이 지역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양(+)의 관계지역에서의 세출증가율 평균과 음(-)의 관계지역에서의 세출증가율 평균이 비슷한 점, 세출증가율과 기반고용증가율 사이의 변수간 상관관계에서 양(+)의 관계지역이 음(-)의 관계지역보다 높은 상관성이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경제개발비를 통해서 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지출의 투자적 지출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지역 내 기반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고용이 촉진되고 지역경제도 동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있다. 첫째, 지역경제성장정책이 지역경제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개발의 여건조성의 목표를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기초하부구조의 구성에 두어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문동진·홍준현, 2008). 다음으로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연계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운호. (2008).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2(1): 65-381.
- 권창기·정현욱. (2005). 지역발전을 위한 정주지개발전략-울산광역시 사례. 「한국지방자치연구」, 7(1): 67-87.
- 김기호. (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병현. (1991). 「경제기반이론에 의한 대전시 경제기반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완. (2003).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 「재정연구」, 9(2): 54-73.
- 김학훈. (1999). 한국 도시 경제기반 분석: 최소요구치 방법의 적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7(2): 631-651.
- 김학훈. (2000). 농촌중심지의 경제기반분석: 청원군 미원면의 사례연구. 「교육과학연구」, 14: 137-150.
- 김현민. (1993). 수도권 도시의 경제성장 분석: 도시산업개발 정책방향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27(2): 359-380.
- 김혜천. (1994). 건설부문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4(4): 91-108.
- 류수열·윤성민. (2007). 제조업 다양성이 광역경제권의 성장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25(4): 101-123.
- 모성은. (1999).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1): 45-62.
- 문동진·홍준현. (2008). 지방재정역량과 지역격차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9-231.
- 박성익·유병철. (2007). 과학기술을 고려한 지역산업구조의 추이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분석. 「지역연구」, 23(2): 117-147.
- 박수진·김인. (2006). 「도시해석」. 푸른길.
- 박지형·홍준현. (2007). 시·군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6(1): 167-196.
- 이영성. (2008).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중요소생산성과 결정요인. 「국토연구」, 58: 39-53.
- 안동환·권오상·이성우. (2003). 생산경계접근법을 이용한 제조업의 지역별 생산성 결정

- 요인 분석. 「국토계획」, 38(6): 149-174.
- 오병기. (2006). 비도시지역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50: 163-180.
- 임범중·한상민·윤병국. (2004). 충북 시군별 경제기반모형과 관광산업 특화도 분석. 「관광연구저널」, 18(2): 265-282.
- 윤지웅·김태영·김주경. (2009).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13(3): 135-157.
- 진도일. (2000). 「지역경제학의 이해」. 교우사.
- 조달호. (2002). 한국의 인적자본투자 추정 및 경제적 의의. 「한국경제연구」, 9: 29-53.
- 최낙필. (2005). 지방분권화시대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전략산업 선정과 조정방향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8(1): 165-194.
- 최준호·이환범·송건섭. (2003). 광역도시와 인근중소도시 지역주민간의 상호 이주영향 요인평가: 공공서비스질 만족도를 중심으로. 「행정행정학보」, 37(1): 183-203.
- 충북개발연구원. (1995).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 홍기용. (1994). 「지역경제론」. 서울: 박영사.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2000-2005」.
- Alexander, Jone W. (1951). *An Economic Base Study*. Bureau of Business Research. School of Commerce, University of Wisconsin.
- Anselin, Luc. (1999). *Spatial Econometrics*. Bruton Center, School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on-line: www.csiss.org).
- Becker, Gary. (2002). *Human Capital*. Revista de Ciencias Empresariales y Economia.
- Beeson, Patricia. (1987).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and Agglomeration Economies in Manufacturing, 1959-73.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7(2): 183-199.
- Hildebrand, George H. and Mace Arthur. (1950). The Employment Multiplier in an Expanding Industrial Market: Los Angeles County, 1940-47.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2(3): 241-249
- Klosterman, Richard. (1990). *Community and Analysis Planning Techniques*. Savage: Rowmand and Littlefield.

접수일(2013년 9월 18일)

수정일자(2013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 16일)